

『益夫傳』의 서사적 특성과 기록성

류 준 필*

차 례

- | | |
|----------------------|----------------------|
| 1. 서론 | 4. 익부전의 문체적 복잡성과 기록성 |
| 2. 『익부전』의 중심인물과 서사구조 | 5. 결론 |
| 3. 『익부전』의 합리성 추구의식 | 참고문헌 |

1. 서론

『益夫傳』은 한문으로 씌어진 '춘향전'이다. 한문소설로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작품이다.¹⁾ 아직 정확한 제작 시기나 필사 시기 또 전승 경로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우나, 당시에 다양한 판소리 춘향가와 춘향전 작품들이 연행되고 전승되던 상황을 배경으로 새롭게 한문으로 씌어진 작품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아울러 『廣漢樓記』나 『春香新說』 같은 다른 한문본과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도 거의 없는 작품인 것으로 짐작되므로, 현장에서 연행되거나 국문으로 기술된 춘향전 작품군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에 비교적 적절

* 성균관대 연구교수

* 이 논문은 2000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0-045-A21004)

1) 류탁일, 「미발표 춘향전 『益夫傳』에 대하여」, 제36회 전국국어국문학 연구발표대회 발표논문집, 1993. 6에서 소개되었다. 개략적인 해제는 이 발표문으로 미룬다.

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익부전』의 특성에 접근하려고 한다.

첫째, 『익부전』은 그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춘향’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지 않고 이름이 李舜伯이고 字가 益夫인 이도령을 표제로 내건 작품이다. 그렇다면 이도령을 중심인물로 두고 이야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익부전』의 서사적 틀은 일반적인 ‘춘향이 이야기’들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소설적 문법과 어떤 교섭을 이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익부전』은 특정한 사람(晚齋)에 의해 씌어진 작품이다. 춘향전 작품들 일반이 공동작의 성격이기에 개인 창작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어떤 작품보다도 창작자적 자세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기왕에 연행·유통되는 판소리 춘향가나 소설 춘향전이 존재하는 마당에 새로이 한문으로 『익부전』을 서술한 데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작용했을 것이다. 특히 『익부전』 본문에는 당시 판소리 광대나 가객 등에 의해 연행되는 대목들에 대한 논평이 적잖이 담겨져 있다. 이를 통해 『익부전』 작가가 판소리 춘향가 및 다른 춘향전 작품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 짐작할 수 있고 그런 인식이 『익부전』에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익부전』은 한문소설이다. 여타의 한문소설처럼 『익부전』에도 다양한 종류의 문체에 해당하는 한문 글쓰기가 다채롭게 구현되어 있다. 『익부전』은 한걸음 더 나아가 더 극단적인 양상까지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무엇보다 『익부전』이 한문으로 씌어진 작품이라는 데서 직접적으로 연유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달리 말해 『익부전』에 내포된 다양한 글쓰기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한문소설에 내재된 특정한 성향이 전형적으로 혹은 더 극단화된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통해 한문소설의 ‘소설’적 특성이 아닌 ‘한문’적 특성을 조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익부전』의 중심인물과 서사구조

『익부전』은 모두 아홉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부분 모두에는 장회체와 같이 소제목들이 붙어 있다. 그 소제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李再興讀書登蔭仕 이재홍이 글을 읽고 돌아가신 부모님 음덕으로 벼슬길에 오르다
2. 李陵令出宰龍岡縣 李陵令(이재홍)이 용강현감으로 부임하다
3. 李龍岡復職南原府 용강현감 이재홍이 남원부사로 복직하다
4. 李道令月夜宴春香 이도령이 달 밝은 밤에 춘향이와 인연을 맺다
5. 李道令陪母親上京 이도령이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가다
6. 春香再上書李道令 춘향이가 이도령에게 거듭 편지를 쓰다
7. 李道令登科拜繡衣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에 제수되다
8. 李御史出道南原府 이어서가 남원부에 출도하다
9. 李御史出道各營邑 이어서가 각 영읍에 출도하다

위의 제목들을 통해서도 『익부전』의 기본적인 이야기 전개과정이 드러난다. 핵심 줄거리는 여타의 춘향전 작품들과 다를 바 없다. 그렇지만 『익부전』이라는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술의 기준점은 아무래도 춘향이보다는 이도령에게 맞추어져 있다. 대다수의 춘향전 작품들과는 달리 이어서가 남원부에 출도하여 남원부사를 치죄한 이후에도 전라도 다른 지방을 살핀 내력이 '9. 李御史出道各營邑' 부분에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점 『익부전』처럼 한문으로 씌어진 『春香新說』·『懸吐漢文春香傳』과 유사한데²⁾, 한문본 계통의 작품들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어 흥미롭다.

그렇지만 이도령의 아버지인 이재홍이 남원부사가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이 담긴 '1. 李再興讀書登蔭仕'과 '2. 李陵令出宰龍岡縣' 부분은 『익부전』의 독특한 내용이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익부전』의 중심인물은 당연히 이도령과 춘향이고 이야기 전개의 핵심도 두 사람의 '만남-결연-이별-재회'라는 기본 구

2) 허호구·강재철 공역, 『역주 춘향신설·현도한문춘향전』, 이희, 1997, 121~124면.

조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소 장황하게 이도령의 아버지 이재홍의 삶을 서술한 내용으로 인해 『익부전』은 춘향전 가운데서 다소 이질적인 구조를 지니게 된다. 서두 부분이 이재홍에 대한 서술로 시작해서인지 『익부전』의 마지막 부분도 이재홍이 젊은 시절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도사를 찾아가나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추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³⁾ 이러한 내용이 『익부전』의 앞 부분에 제시됨으로써 『익부전』은 통상적인 춘향전의 서사구조와는 약간의 거리를 두게 된다.

『익부전』 서사 구조의 이러한 특성은 그 자체로도 특이할 뿐더러, 더군다나 통상적인 춘향전 작품들과는 구분되는 내용이 첨가되는 지점에 기존의 영웅소설적 문법이 개입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 이채롭다. 이재홍에 대한 서술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태종대에 경기도 陽城縣 新谷에 牧使 李源正(驪江 이씨)과 부인 竹山 박씨가 살았는데 나이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명산과 사찰에 빌다가 이재홍을 낳았다. 이재홍이 나이 3살 되던 때에 전염병으로 부모를 잃고 동네 과부 박씨의 손에 양육되었다. 몇 년 후 박씨마저 세상을 떠나자 세상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는데, 우연히 도사를 만나 자신이 현달할 관상이라는 말을 듣고 도사를 따라 廣州 板洞으로 갔다. 이후 그곳을 떠나 남한산 白雲庵에 우연히 찾아들었는데 스님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대고 발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자초지종을 물으니 과거에 이원정이 크게 시주한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암자에 몇 년을 머물며 과거 공부를 하다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갔다. 도중에 김참판의 눈에 들어 그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과거날에 김참판의 사위와 나란히 앉아 시험을 보았는데, 자신의 답안을 대신 써준 김참판 사위는 대과 장원을 하고 자신은 진사 장원에 뽑혀 건원릉 참봉에 제수되었다. 김참판 처남의 딸과 결혼한 뒤 여러 관직에 재직하

3) 현재의 『익부전』이 완전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 『익부전』의 <서문>(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서문)에는 이순백이 일품 벼슬까지 오른다고 되어 있지만 본문엔 일품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없다. 또 마지막 대목을 보더라도 이야기가 완결되었다는 느낌을 주기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그 마지막 부분의 서술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승지는 충청감사로 제수되어 임지로 떠나면서 광주 판동을 들르겠다고 걱정하고 선생이신 응도사를 찾으니, 도사는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수십 년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서 이승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셨다.”(“李承旨除授忠清監司, 離發作路於廣州板洞, 訪尋先生藥道士, 則道士歸天, 已滿數十年, 不覺涕淚沾襟.”)

다가 용강 현감으로 가게 되었다.(1. 李再興讀書登菴仕 부분) 김참판과 이별하고 용강 현감으로 선정을 베풀다가 아들 舜伯을 낳다. 이후 다시 선혜청 낭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관직을 몇 차례 더 옮기고는 신병으로 벼슬에서 물러나 쉬었다. 이후에 다시 복직하여 남원부사로 부임하게 되었다.(2. 李陵舍出宰龍岡縣' 부분)

위에서 요약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재홍이 남원부사로 부임하기 이전까지의 행적은 영웅소설의 서사 전개와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소위 『소대성전』 유형⁴⁾이라고 불리는 작품—『소대성전』·『장풍운전』 등과 관련이 있다.⁵⁾ 『소대성전』에서 병부상서 소량이 청용사 노승의 권유로 많은 재물을 청용사에 시주하였고 부모가 모두 죽은 이후에 소대성이 떠돌아 다니며 아울러 소대성의 장래를 알아본 리진에 의해 거두어들여져서 사위가 된다는 사실을 참조할 때, 『익부전』에서 이재홍에 대해 서술한 내용과 무척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풍운전』에서도 비록 장풍운이 부모와 사별한 것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분리되어 고난을 겪다가 장인 리운경에게 구해져서 사위가 되는 식으로 서사가 진행되는데, 『소대성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유사성은 인정할 수 있다⁵⁾.

물론 이들 작품과 『익부전』의 서사구조가 동일하다고 하기엔 커다란 거리가 있다. 무엇보다 『소대성전』과 『장풍운전』의 서사 구조에서 관권을 이루는 '사위 박대' 모티브⁶⁾가 없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또한 이재홍의 현달 가능성을 알아본 김참판이라는 인물도 결과적으로 자기 사위가 과거에 합격하도록 하기 위해 이재홍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재홍과 혼인하는 쪽도 김참판의 처가(본문에는 영락한 양반가로 설정되어 있다)라는 점이 차이가 난다. 뿐만 아니라 『소대성전』과 『장풍운전』 등 기존의 영웅소설류에 흔히 등장하는 초월계의 개입(이원론적 세계)도 『익부전』과는 아무런 상관

4)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출판부, 1985, 72~92면.

5) <소대성전>과 <장풍운전>에 대한 여러 논의에 대해서는, 김일렬, 『소대성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이창현, 『장풍운전』, 위의 책; 이복규, 『소대성전』, 『황폐상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총Ⅱ』, 일지사, 1993 참조.

6) 조희웅, 『조선후기문헌설화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1, 118~122면; 서대석, 앞의 책, 77~84면; 김홍균, 『못마땅한 사위』형 소설의 형성과 변모양상, 『정신문화연구』, 1985년 겨울호, 145~165면.

이 없다. 조력자로서 도사가 등장하고 백운암의 스님이 거처할 곳을 내어주지만 그러한 현실적인 도움을 제외하고는 달라지는 조건이 전혀 없다. 이재홍의 능력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가진 재능일 뿐이다.

이처럼 비록 제한적인 의미에서이기는 하지만 춘향전(춘향가)을 한문소설로 새로이 전환시키는 과정에 기존의 영웅소설적 서사문법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기실 이러한 양상은 이미 다양한 춘향전 작품군 속에서 발견되어 온 특성이기도 하다. 단적으로 신재효가 개작한 『남창 춘향가』의 경우만 하더라도 영웅소설적 개작의 양상이 확인되고,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도 『유충렬전』과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⁷⁾ 그렇지만 이들 작품들에서 보이는 특성이 춘향과 이도령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아 만들어진 것인데 비해, 『익부전』의 춘향과 이도령은 영웅소설적 성향과 거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일까? 이것은 아무래도 『익부전』의 작가가 춘향과 이도령의 이야기를 그려낼 때 이도령을 중심 인물로 설정했던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작가는 이도령이 광한루에서 춘향과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방자 元得의 입을 통해 춘향의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죽은 鄉吏 梁命脩라고 설명해 놓았다. 이 정도라면 춘향의 혈통은 미천하다고 할 만하다. 그렇다고 이도령이 대단한 천품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 것도 아니다. 여타의 춘향전 작품들처럼 춘향과 사귄 때는 아직 철없는 소년으로 등장하고 뒷날 여사 노릇을 잘 해서 임금의 인정을 받아 순탄하게 벼슬살이를 한다는 정도일 뿐이다. 다만 아버지 이재홍이 어렸을 때 만난 도사가 이재홍의 운수를 점쳐 주면서, 이재홍의 집안을 널리 떨칠 사람이 이재홍의 아들이라고 한 대목에서만 이도령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익부전』의 작자는 이 작품의 주인공 이순백이 세상에 알릴 만한 인물이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점을 작품 내적인 논리로 부각하기 위해, 그 아버지 이재홍의 이야기를 도입부의 형식으로 끌어들었다고밖에는 보기 힘들다. 아니 정확히는 이런 의식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사실 『익

7) 김홍규, 「신재효개작 춘향가의 판소리사적 위치」, 『한국학보』 10집, 1978, 24~26면; 김종철, 『판소리사연구』, 역사비평사, 1997, 145~152면.

부전』의 서사 전개는 세세한 대목에서도 치밀하게 안배하는 등 잘 짜여진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이재홍의 삶을 서술한 부분과 이후 춘향과 이도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사이에는 거의 아무런 서사적 관련성도 찾지 어렵다. 이런 진대 굳이 이런 방식의 서사구조—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예정된 이재홍의 이야기를 설정한 것은 결국 이순백이 춘향과의 사랑을 성취하고 관료로서도 성공을 거둘 만한 존재라는 느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보아야 할 듯하다.

행복한 삶의 장구한 지속을 가장 손쉽게 전달하는 경로는 대대손손 대를 이어가며 행복이 유지된다는 방식이다. 본문에 나타난 것으로 가장 확실한 암시는 이순백의 할아버지 이원정이 백운암에 시주한 상당한 양의 재물이다. 이로 인해 이재홍-이순백 부자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다고도 볼 수 있다. 제1장회의 제목이 “이재홍이 글을 읽고 돌아가신 부모님 음덕으로 벼슬길에 오르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런 인상이 더 강해진다. 어쨌거나 『익부전』 앞 부분의 이재홍 이야기는 이순백의 존재와 가치를 미리 부여해 놓으려는 후회적 장치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영웅소설식 구도와 문법이 『익부전』 서사구조의 일부로 도입된 것인 듯하다.

3. 『익부전』의 합리성 추구의식

기존의 영웅소설적 문법을 수용함과 더불어 『익부전』에는 당시 연행되던 판소리 춘향가에 대한 논평이 다소 담겨져 있다. 이 논평 서술을 살펴봄으로써 『익부전』의 작가가 기존에 연행되던 판소리 춘향가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익부전』의 작자는 이도령과 춘향이 서로 만나 인연을 맺는 내용을 중심으로 춘향가의 비합리적 측면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있다.

춘향이 돌아 와서는 “잠깐 말씀이나 나누기로 하지요”라고 하였다. 집안으로 들어가 몸종인 자단을 불러서는 가지고 있는 술과 안주를 찾아 술상을 차리게 했다. 술은 의적이 만든 것처럼 여러 가지 약과 기름을 타서 만든

뜻하고, 안주는 물과 바다 깊은 곳에서 나는 진귀한 음식들로 그득했다. 춘향이 먼저 도령에게 권하니 도령은 연거푸 석 잔을 마시고서 술기운이 올랐다. 도령이 춘향에게도 한 잔 권하니 춘향은 술잔을 받아 입술에 갖다 대고는 말했다. <이렇게 서로 술을 권하는 하는 장면이 이르러서는, 세상의 가객이나 광대들은 권주거나 잠가를 부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런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서로 주고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도령은 벼슬하는 사대부 집안의 아들이요 춘향 또한 규방의 처자인데, 어찌 한쪽에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쪽이 듣고 할 리가 있겠는가!>⁸⁾

광한루에서 춘향을 본 이도령이 밤에 춘향의 집으로 방문하고 싶다는 편지를 전하자, 아직 소년이 기생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는 답장을 보낸다. 이에 괴로워하던 이도령이 밤에 춘향의 집을 허락도 없이 찾아와 춘향을 만나려 하는 상황에 이어 위의 인용문이 서술되어 있다. 밑줄 친 <> 부분이 『익부전』 작가의 논평 대목이다. 논평의 핵심은 광대나 가객이 판소리를 연행할 때 이 대목에서 이도령과 춘향이 권주가를 주고받는 것으로 설정하고 노래를 부르지만,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도령은 사대부 집안의 자제인데 어찌 권주가를 노래할 것이며 춘향 또한 규방의 처녀와 같은 행실을 하는 사람으로 역시 노랫가락을 읊었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이런 논평은 당시에 연행되던 춘향가나 춘향전 작품군에 등장하는 권주가 장면의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다. 아무래도 『익부전』의 작가가 양반 사대부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렇지만 이 비판을 단순히 양반 사대부적 상층의 시각이라고만 재단하고 말기는 곤란하다. 정작 해당 부분의 문맥에서 보자면, 권주가를 부르는 상황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도령과 춘향이 서로 권주가로 수작하지 않을 때 반대급부적으로 강화되는 특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도령과 춘향이라는 두 등장인물의 성격의 일관성이다. 이도령은 사대부 집안의 자제로서 권주가를 노래하지

8) “春香還來曰：「小許分話。」入去衙中，呼小婢自丹，搜來藏中酒肴，排列案下。酒是儀狄所作諸般藥膏之和，肴是陸海峽府之許多般豐珍羞。先勸道令，連倒三盃，道令醉氣乍醺。還勸春香，春香受接半脣而已。<至此勸飲之際，時俗歌客廣大輩，演出勸酒歌與雜歌辭。於此會，此非相稱相合之語。道令卽士夫子弟，春香亦鸞閣處子，則道令處子，安有聽歌唱歌之理哉!>”

않기에 현실성에 손상이 생기지 않고, 춘향이는 비록 기생의 신분에 있기는 하지만 규방의 처녀처럼 자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격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 이어 서술되는 이도령과 춘향의 첫날밤 장면에서도 『익부전』의 작가는,

도령은 “춘향아, 춘향아! 네 없으면 내가 있을 것이며 내가 없더라면 네가 낫겠느냐.” 하고는, 먼저 도복을 벗고 이어 바지를 벗으면서 “楚襄王이 수고로이 바라보지 않도록 巫女가 알아서 비구름을 보내도다.”고 하였다. 춘향은 부끄러운 마음이 가지지 않아 방 구석 편에 꼳꼳이 앉아 끝내 옷을 벗지 않았다. 도령은 춘향을 끌어안고 차츰 아래로 수고로이 내려갔다. 얼마 있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었고 두 몸이 한 몸이 되어 즐겁게 회롱하였다.(……) 가객이나 광대들은 이 대목에 이르면 다음과 같이 부른다.

春香: ‘金郊 드넓은 外巖 들에 검은 소방울이 딸랑.’

道令: ‘뒷 질 복은 동동 앞 질 복은 동동’

春香: ‘나는 죽어 황학 물 되고 너는 죽어 큰 배 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래오래 놀고지고 너는 죽어 원앙새 되고 나는 죽어 푸른 강 되어 그 강물이 다하도록 오래오래 놀고지고.’

道令: ‘너는 죽어 들 활이 되고 나는 죽어 철 공이가 되어 밤낮으로 쫓을 지고 너는 죽어 연리지 되고 나는 죽어 비익조 되어 이 세상 다하도록 함께 즐겨 살고지고.’

<이와 같은 몇 마디 노래 대목은 다 연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양반가의 어린 자제와 행실 바른 처자가 이처럼 황탄하고 음란한 노래를 지어 부르는 일은 절대로 믿고 기록할 만한 것이 못 된다.>⁹⁾

라고 서술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평은 『익부전』의 작가가 상황적 의미와 정서, 장면의 극대화 방식 등을 통해서 나름의 미적 원리를 구현하는 판소리의

9) “道令曰:「春香, 春香! 你無我不成, 我無你不生。」先脫道服, 次脫衫袴曰:「莫教襄王勞望眼, 巫山自送雲雨中。」春香則羞心未已, 堅坐一邊, 終不解衣。道令抱之春香, 次次御下苦勞。移時, 二人作一人, 二身作一身, 快活調戲。(……) <歌客廣大輩, 至於此, 春香曰:「金郊萬頃外巖野, 黑(글자 미상)牛角鈴多浪。」道令曰:「後寺鼓鑿鑿, 前寺鼓隆隆。」春香曰:「吾死爲黃河水, 汝死爲大廣船, 不分晝夜, 泛泛長遊。汝死爲鴛鴦, 吾死爲清江, 水限水終, 泛泛長遊。」道令曰:「汝死爲石白, 吾死爲鐵杵, 日夜春之。汝死爲連理枝, 吾死爲比翼鳥, 與天地同樂云云。」<此數片語, 皆是衍出者言, 有兩班童子貞烈處子, 作此荒辭亂淫之歌, 切非可信可錄者也。>”

특성¹⁰⁾을 제대로 감식하지 못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익부전』의 작가가 하나의 완결된 소설 작품으로 『익부전』을 서술한다고 할 때라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위 인용문의 밑줄 친 < > 대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황탄하고 음란한 노래 자체가 부정적으로 파악되었다기보다는 이도령과 춘향이의 처지와 성격에 비추어볼 때 그런 노래가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도령과 춘향의 결연 내용이 끝나는 대목에서 어름질 노래와 유사한 내용을 서술한 다음에, “소년 소녀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찌 이같이 음란한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겠는가. 이는 소리를 팔고 사는 광대들이 연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禮에 합당하고 烈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¹¹⁾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자면 『익부전』의 작가는 이도령과 춘향의 처지나 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춘향 이야기’를 이해·해석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인용한 『익부전』의 논평 대목은 모두 이도령과 춘향이 결연하는 부분에 나온다. 특히 『익부전』의 작가는 판소리 춘향가에서 연해지는 삼입가요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삼입가요는 그 속성상 비교적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데, 결연 부분에서 흔히 등장하는 ‘권주가’나 어름질 노래를 포함하는 ‘사랑가’ 계열의 가요¹²⁾에 대해서 비교적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익부전』의 작가에게는, ‘춘향 이야기’가 사리에 맞는 방향으로 구성적 완결성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고정성·독자성을 지닌 (삼입)가요와 전체 서사 구조가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 듯하다¹³⁾. 이도령과 춘향의 초야 사설을 중심으로 한 결연 대목은 청중과 독자의 관심·흥미를 유발하기에 무척이나 적절한 부분인바, 여러 명창들의 더듬에 의해 다양한

10) 김홍규, 「판소리의 서사적 구조」, 조동일·김홍규 편,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 비평사, 1978, 108~116면; 김대행, 「판소리 사설의 구조적 특성」, 『국어교육』 27·28, 1976 참조.

11) “然童子處子初逢之席, 豈作此無倫之歌. 不過乎賣喉輩衍出者, 當禮當烈..”

12) 김동욱, 「판소리 삼입가요 연구」,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476~478; 527~537면.

13) 삼입가요의 전반적 성격과 위치에 대해서는, 전경옥, 『춘향전의 사설형성원리』,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0; 정충권, 『판소리 사설의 연원과 변모』, 도서출판 다운샘, 2001 참조.

레퍼토리가 개발되어 왔다.¹⁴⁾ 이 점을 상기할 때 『익부전』의 작가에게 이 부분이 춘향 이야기의 합리적 전개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으로 인식된 것은 남득이 간다.

이 문제에 한정해서 판단하자면, 기존의 춘향 이야기(판소리나 소설을 포함)에서 이도령과 춘향의 처지·성격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결연 부분의 삽입가요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춘향 이야기가 구성적 완결성을 갖춘 창작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결연 부분의 삽입가요와 작품의 전체 구조가 합리적으로 어울리게끔 처리해야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 『익부전』은 그러한 경향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데 『익부전』의 작가가 삽입가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춘향 이야기의 합리성을 추구했다고 할 때의 합리성이 곧 상층의 의식을 뜻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익부전』이 추구하는 합리성은 춘향과 이도령의 성격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근거로서의 합리성이기 때문이다. 성격적 일관성을 지속하는 데에 모순되거나 당착을 일으키지 않는 한 삽입가요적 요소나 골계적 표현 등은 여전히 남겨져 있다. 달리 말해 등장인물의 성격적 일관성을 추구하는 합리성이 계층적·계급적 의식과 등치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예컨대 신재효가 <남창 춘향가>에서 현실적 합리성을 근거로 ‘십장가’를 개작한 데 비하여 『익부전』에서는 다른 어떤 이본들 못지 않게 자세하고도 격정적인 문투로 길게 서술하고 있다.¹⁶⁾ 신재효가 ‘십장가’에 담긴 과장된 성격을 의식한 것이라면, 『익부전』의 작가는 그런 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해도 ‘不更二夫’하는 춘향의 성격을 전형적으로 제시하는 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도령과 춘향이 처음 만나 수작하는 장면에서 이도령이 춘향을 끌어안으려고 허둥대는 모습이 다소 골계적으로 그려져 있고 춘향에게 편지를 쓸 때 통상적인 형식도 못 지켜서 방자 원득에게 놀림을 당하는 서술도 등장한다. 여러 이본들에 등장하는 ‘서책 사설’도 마찬가지로 등장해서 해학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기실 이도령의 이런 모습 자체는 이도령의 처지

14) 전경옥, 앞의 책, 102면.

15)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동일, 『홍부전의 양면성』, 『계명논총』 5, 1969; 김대행, 『판짜기 원리에 대한 한 가정』, 『판소리연구』1, 판소리학회, 1989.

16) ‘십장가’의 여러 양상에 대해서는, 전경옥, 앞의 책, 136~143면.

와 성격이 개별적인 상황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합리성의 추구 자체가 직접적으로 제충성과 조응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미적 특성과도 직접적인 상관성을 이룬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론 『익부전』이 지향하는 합리성이 등장인물의 처지나 성격의 일관성과 관련된 합리성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가령 기존의 판소리에서는 이도령이 과거를 볼 때 제시되는 시제가 ‘天下太平春’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과거 시험을 잘 모르는 이들이 지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問策 형식으로 바꾸어 놓는다.¹⁷⁾ 그리고 이순백이 전라도 암행어사에 제수되는 장면에서도, 당시 校理 이순백이 순전히 우연하게 어사로 뽑혔고 교지를 받아들고 동대문 밖 청파역에 나와 교지를 뜯어보고서야 전라도 암행어사로 제수되었음을 알게 된다고 해 놓았다. 그러면서 “가객이나 광대들은 암행어사로 나가는 대목에서 모두들 임금님 앞에서 이순백이 자칭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제 막 급제한 새내기 어찌 감히 임금님 앞에서 자칭할 수 있겠느냐. 이는 다 무식하고 사리를 모르는 이들의 말일 뿐이다.”¹⁸⁾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논평은 춘향 이야기 속의 비현실적인 대목을 현실성 있게 바로 잡은 것이지만, 작품의 구조나 인물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에 이순백이 암행어사로서 남의 부인 무덤에서 통곡하는 대목에 대한 논평은 성격이 다소 다르다. 『남원고사』 계열의 작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¹⁹⁾ 이 광경을 서술해 놓고는, “이는 가객이나 광대들이 임의로 과장해서 그려낸 광경이다. 어사가 비록 춘향에게 폭 빠졌다 하더라도, 임금님의 명을 받은 젊은이로서 어찌 이런 경거망동을 하겠는가. 이 대목은 더욱 무식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따름이다.”²⁰⁾고 논평하였다. 『익부전』의 작가에게는 암행어사로서의 이런 행동은 가당치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다. 여기에도 나름의 현

17) “世宗大王三十年丁卯，正月十五日 戊午，設科於春塘臺，取及第十人。當此道令及第之時，歌客俳優輩，則曰：懸題‘天下太平春.’此是無識虛做之說也，未可準信。而策問題，則‘問竹’也。李舜伯入場，應製其策。”

18) “歌客俳優輩，臨此繡衣出行之句，皆曰：‘榻前自請。’焉有新及第纔出六之人，敢行自請於至尊之前乎！此實無識無理之語也。”

19) 김동욱 외, 『춘향전비교연구』, 삼영사, 1979, 361~364면.

20) “此是歌客俳優，私自講張者。御史雖甚深惑於春香，年少奉命，豈行此等妄舉乎！此一節，尤爲無識之說也。”

실적 합리성이 개재되어 있는데, 위의 예들과는 달리 주인공 이순백의 신분이나 처지와 관련이 있다. 이순백이 암행어사의 신분이라는 점은 서사의 전개상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런 이순백이 다른 사람의 무덤을 붙잡고 통곡하는 상황은 암행어사라는 자신의 처지와 자칫 어긋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이 점 이순백의 처지와 성격의 일관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암행어사의 신분인 한에는 해학적·골계적 상황으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암행어사라는 신분 자체로 인해 얼마든지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부전』에도 농부와의 대화 장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암행어사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어야 한다는 조건 자체에 이미 반전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얼마든지 해학적인 장면의 연출이 가능하다. 이미 이 사실을 아는 청중(독자)과 그 사실을 모르는 작중 인물 사이에서 빚어지는 상황에 대한 반응의 낙차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순백이 월매와 만나는 장면, 이순백이 옥으로 들어가 춘향을 만나는 장면, 남원부사 생일날 신분을 속이고 연출하는 장면 등은 이미 웃음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암행어사라는 신분이 해학적 상황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유발한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의 부인 초본에서 통곡하는 어사의 행위를 비판하는 『익부전』 작가의 합리성 추구가 춘향 이야기의 기본 성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익부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논평들은 역으로 『익부전』의 작가가 하나의 완결된 서사물로서 내적 합리성을 지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연 부분의 삽입가요들에 대한 논평들을 통해서 이도령과 춘향의 처지와 성격이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순백이 암행어사가 된 이후의 상황에서는 암행어사라는 신분이 서사 전개의 핵심적 요건이므로 그 본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여준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합리성의 추구는 결코 단순히 상층의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기 어려우며 미적 특성과 직접적인 관련을 이룬다고 볼 수도 없다. 『익부전』 작가의 이러한 합리성 추구의식은 『익부전』(혹은 춘향전)을 하나의 완결된 서사물로 정립하려는 방향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춘향 이야기의 기본 서사 구조가 이도령의 변화—지리적 이동에 의한 이별, 지위의 변화에 의한 문제의 해결(암행어사)에 근거해서 큰 폭으로 진동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린 소년·소녀라는 처지와 암행어사라는 자격에 의해 규정되는 이순백과 춘향의 성격의 일관성은 작품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핵심적 관건이 된다. 그러므로 『익부전』의 합리성 의식은 계층의식이나 미적 원리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서사적 완결성 추구라는 각도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익부전』이 기본 구조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실이나 장면들을 배제하지 않고 적극 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익부전』의 특성은 무엇보다 완결된 서사성을 지향하는 기록문학으로의 가능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익부전』의 문체적 복합성과 기록성

『익부전』 작가의 합리성 추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 있다. 科學의 試題를 논평할 때에는 직접 시제를 고쳐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지만, 어름질 노래의 경우는 원래의 모습을 제시한 다음에 논평하는 방식으로 서술해 놓았다. 즉 『익부전』이 기존의 춘향가(춘향전)를 완전히 새롭게 개작한 결과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부전』이 한문으로 씌어진 작품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시제가 책문 형식을 답안을 요구하는 '問竹'으로 제시되면 어김없이 策文이 원문 그대로 기술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문소설이 문체적 복합성을 보이는 것처럼 『익부전』에서도 다양한 한문 글쓰기 양식들이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익부전』에서는 이런 성향이 더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발전해 있다.

우선적으로 살펴볼 특징은 모든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내력이 밝혀져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특징이 곧장 한문 글쓰기의 특성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약간의 관련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몇 가지 극단적인 사례만 제시하겠다. 이재홍이 남원부사로 부임하는 과정에서 동행하는 사람들로 「冊客 具仲淵, 岳丈朴浩貞, 妻媻慶範」의 이름을 들고 이어서 호남감영에 가서 관찰사를 만나는 장면에

서 관찰사의 성은 許씨고 호는 愚齋라고 밝혀 놓았다. 또 방자 원득을 소개하면서 그 아버지가 冊客 金命龜라고 했다. 또 이순백이 암행어사에 제수한다는 교지를 받고 자문을 받고자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玉堂書吏 鄭仁旭 庶五寸外叔 朴命九, 中人 李先達在浩, 譯學 朴敬周 妻庶堂叔 金宜赫, 妻庶六寸 金仁潤, 妻家僮從 丁學洙, 家間僮從 成命壽 崔善伊, 奴子 玉珽等”이라고 하였다. 이 밖에도 거의 모든 등장하는 인물에게 정확한 이름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성격이 좀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다른 춘향전 이본과 비교해 보자면, 『남원고사』에는 변학도가 춘향을 매질하라고 형방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형방이 시구를 읊조리는 대목이 나온다²¹⁾. 이 대목에서 형방이 읊는 시구나 상황이 『익부전』과 동일하다. 그런데 『남원고사』에서는 그저 ‘형방’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익부전』에서는 “그 늙은 아전은 성이 梁씨고 이름은 天慶으로 나이가 70에 가까웠다”(所謂老椽, 姓梁名天慶, 年近七旬)고 해서 정확히 이름을 밝혀 놓았다. 이런 정도라면 『익부전』 속에서 작동하는 의식이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익부전』 작가가 『익부전』을 통해서 철저한 ‘기록의식’을 추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기록의식이 비단 한문 글쓰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익부전』이 이런 기록의식의 산물인 것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익부전』에 내재된 기록성은 한문으로 표기될 수 있는 모든 글쓰기 방식에 그 상태 그대로 작품 속에 재현하려는 의지에서 연유한 듯하다. 여타의 한문소설에서도 유사한 예들이 무척이나 많지만 대부분 시문 중심임에 비해 『익부전』은 거의 모든 한문 글쓰기를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그 사례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한시는 제외).

1. 李再興讀書登蔭仕 부분
 - * 占書 : 도사가 이재홍의 운수를 점친 글.
 - * 科賦 : 과거 시험 답안 2개
2. 李陵令出宰龍岡縣
 - * 新延 명단: 신연 일행과 支裝物
3. 李龍岡復職南原府

21) 김동욱 외, 『춘향전비교연구』, 273~279면.

- * 新延 명단과 物目
- * 편지: 이도령이 춘향에게 보내는 편지 2
- * 편지: 춘향의 답장
- 4. 李道令月夜宴春香
- 5. 李道令陪母親上京
 - * 移文: 낙안군수가 보낸 문서
 - * 檢案: 이재홍이 검시한 결과 보고문
- 6. 春香再上書李道令
 - * 편지: 춘향이 이순백에게 보낸 편지. 告目+夾紙.
 - * 편지: 이순백의 답장. 答牌+胎紙.
 - * 新延 명단: 신임 남원부사 신연 일행과 物目.
 - * 편지: 춘향이 이순백에게 보내는 편지. 告目+夾紙.
- 7. 李道令登科拜繡衣
 - * 策文: 이순백의 과거 답안.
 - * 廉探目錄: 전라도 찰邑 염탐 항목.
 - * 占書: 박봉사가 춘향을 점친 내용.
- 8. 李御史出道南原府
 - * 書啓: 이어사가 남원부사를 감찰한 狀啓.
- 9. 李御史出道各管邑
 - * 稟啓: 이어사의 전라도 감찰 보고 문서
 - * 書啓: 상동
 - * 別單: 상동²²⁾

위에서는 한시 작품은 일단 제외하였지만 한시류까지도 포함한다면 그 양이 꽤나 방대하다. 물론 위에서 나열한 한문 글쓰기가 시문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 작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위의 글쓰기들도 여타의 한시문과 마찬가지로 작품 속에서 실현되는 다양한 한문 문체를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즉 일반적으로 한문소설에 나타나는 한시문이 작중 현실 속에서 창작·실현되는 모습 그대로를 한문소설에 재현해 낸 것이라면, 『익부전』에 나타나는 한시도 작중 현실 속의 한시 작품을 소설 텍스트 문면 위에 재현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하다면 위에서 정리한 한문 문체들도 결국은 『익부전』이라는 한문 텍스트에 재현된 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랑가>나 <농부가>를 한문으로 변형하는 것과는 달리, 말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이처

22) 이외에도 옥에 갇힌 춘향의 <思郎歌>, <八字歌>, 농부의 <모심기 노래> 등이 한문으로 기술되어 있다.

럼 한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문 문체 또한 소설 텍스트에 재현된 것이라면, 이 재현은 곧 재현의 기록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작중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한문 글쓰기의 재현이다.

그렇다면 『익부전』이라는 한문소설 텍스트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표현 방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비언어적 작중 현실을 지시하거나 재현하는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익부전』이라는 작품 자체를 기술하는 수단인 한문을 통해서 직접 재현할 수 있는 작품 내부의 글쓰기를 그대로 옮겨적는 영역이다. 예컨대 작중인물이 한시를 한 수 읊었다고 할 때, 작품 내부의 현실에서는 기록될 수도 있고 구연될 수도 있지만, 작품의 텍스트 문면 위로 표현된다면 그때의 한시는 재현된 기록인 것이다.²³⁾ 이처럼 한문소설의 텍스트 위에 표현된 한문 문체들을 재현된 '기록'이라고 한다면, 이 기록성은 등장인물의 성명을 다 밝혀놓은 것으로도 확장해서 논의할 수 있다. 등장인물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한자·한문을 통해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것은 이름밖에 없다. 기타의 다른 정보나 상황은 대부분 비언어적 성격이기 때문이다. 또 직접 발화된 내용도 한문에 의해서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록성은 傳奇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한문소설에서 어느 정도는 다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다.²⁴⁾ 그렇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은 한시문을 중심으로 기록성을 전개하였다고 하겠는데, 『익부전』은 그러한 경향이 훨씬 극단적인 형태로 나아간 모습에 가깝다고 하겠다. 이러한 특성이 사회적 상황이나 관습을 재현하려는 의지가 강화됨으로써 초래된 특성인지, 한문소설적 글쓰기가 '춘향전'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저절로 당대 사회적 상황의 재현에 전인될 수밖에 없었던 데서 연유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다.

23) 판소리 춘향가도 기존의 관습적인 언어양식이나 선행담화들을 복합적으로 수용한 "서정성·서사성·극성의 복합적 언술"이라고 볼 수 있다.(김현주, 『판소리 담화분석』, 좋은날, 1998, 96~110면) 그렇지만 한문소설의 문체적 복합성이 글쓰기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반면에, 판소리에서의 다양한 문체나 언어양식은 그 성격이 차원을 달리 한다.

24)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177~187면.

5. 결론

이상에서 한문본 춘향전의 이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익부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익부전』은 다른 한문본 춘향전 이본인 『광한루기』처럼 달리 당시 연행·전승되는 춘향가나 춘향전과의 상호 관련 속에서 씌어진 작품이다. 이 점을 적극 고려해서 한문으로 기록된 문학으로서 『익부전』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려고 하였다.

『익부전』은 특이하게도 이도령의 아버지 이재홍의 이야기가 꽤 길게 서술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재홍에 대한 서술은 『소대성전』이나 『장풍운전』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뒤에 이어지는 이도령과 춘향의 이야기와는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홍에 대한 서술에서 시작된 이유를 짐작하자면, 이도령을 중심으로 『익부전』이 서술됨으로써 기존의 영웅소설적 문법이 차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익부전』에는 당시 가객이나 광대들이 연행한 판소리 대목에 대한 논평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그러한 논평을 통해서 『익부전』의 작가는 이도령과 춘향이의 처지와 성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대목을 지적함으로써 춘향과 이도령의 이야기에 서사적 합리성과 완결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익부전』에는 여타의 한문소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한문문체가 복합적으로 등장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익부전』에서 더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익부전』에는 한문으로 표현될 수 있고 한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재현이 가능한 글들을 그대로 재현하고자하는 기록성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다양한 한문문체들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성명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였다. 통상적인 춘향전에 담긴 사회적 현실이 한문소설을 적극 전인해서인지 아니면 한문소설이 춘향전을 대상으로 삼았기에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을 것이다.

주제어: 익부전(益夫傳), 서사구조, 영웅소설, 합리성, 춘향가, 문체적 복합성, 기록성, 재현

참고문헌

- 김대행, 「판소리 사설의 구조적 특성」, 『국어교육』 27·28집, 1976
- , 「판짜기 원리에 대한 한 가정」, 『판소리연구』1, 판소리학회, 1989
- 김동욱, 「판소리 삼입가요 연구」,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 김동욱·김태준·설성경, 『춘향전비교연구』, 삼영사, 1979
- 김일렬, 「소대성전」, 김진세 편,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 김종철, 『판소리사연구』, 역사비평사, 1997
- 김현주, 『판소리 담화분석』, 좋은날, 1998
- 김홍균, 「‘못마땅한 사위’형 소설의 형성과 변모양상」, 『정신문화연구』 1985년 겨울호
- 김홍규, 「신재효 개작 춘향가의 판소리사적 위치」, 『한국학보』 10집, 1978
- , 「판소리의 서사적 구조」, 조동일·김홍규 편,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 비평사, 1978
- 류탁일, 「미발표 춘향전 『益夫傳』에 대하여」, 제36회 전국국어국문학 연구발표대회 발표논문집, 1993. 6
-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출판부, 1985
- 이복규, 「소대성전」, 『황폐상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Ⅱ』, 일지사, 1993
- 이창현, 「장풍운전」, 김진세 편,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 전경옥, 『춘향전의 사설형성원리』,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0
- 정충권, 『판소리 사설의 연원과 변모』, 도서출판 다운샘, 2001
- 조동일, 「홍부전의 양면성」, 『계명논총』 5, 1969
- 조희웅, 『조선후기문헌설화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1
- 허호주·강재철 공역, 『역주 춘향신설·현토한문춘향전』, 이희, 1997

<Abstract>

A Study on 'Ikbujun'

Ryu, Jun-Pil

The Story of Ik-Bu(益夫傳), the sino-character version of the *Chun-Hyang story*(春香傳·春香歌), is centered not around the love of Chun-Hyang and Yi-Mongryong, but around the lineage and biography of Yi-Mongryong.

The description of Yi-Mongryong's father is not of importance in original *Chun-Hyang story*, but is fully practised in *The Story of Ik-Bu*. The heroic peculiarities of Yi-Mongryong is also emphasized, then *The Story of Ik-Bu* obtains the similar aspects with heroic novels such as *The Story of So-Daesung*(蘇大成傳) or *The Story of Jang-Pungoon*(張風雲傳).

Another characteristic of *The Story of Ik-Bu* is the overflowing comments on the musical performance of *Chun-Hyang story*. By criticizing the inconsistent points of *Chun-Hyang story*, the writer tries to give the narrative consistency and completedness to *The Story of Ik-Bu*.

The last characteristic we can point out is the representation of diverse sino writing styles. The narrative details like letters, documents or appellations are represented as such in *The Story of Ik-Bu*. These characteristics form the stylistic figure of *The Story of Ik-Bu*.